

제주 고산리 유적 처음 만난 토기

관람안내

개관시간

하절기 (03월 ~ 10월) 10:00~19:00

동절기 (11월 ~ 02월) 10:00~18:00

관람료 : 무료

휴관일 : 매주 월요일/1월 1일, 설·추석 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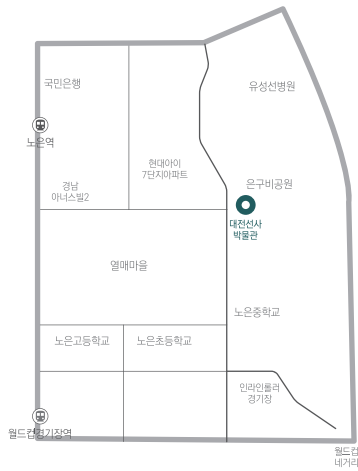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pre/index.do>

대중교통 안내

지하철 : 노은역 4번출구 열매마을 9단지 앞

버스 : 101번/114번/116번/117번/121번/
655번(노은역 하차)



찾아오시는길

3408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

(지족동 920번지)

전화 : 042-270-8640

2018. 11. 30

2019. 02. 28

2층 기획전시실

유물 대여 : 국립제주박물관

고산리 유적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현재 사적 제412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1987년 유적의 존재가 처음 학계에 알려졌고, 1997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어 수만 점의 석기 및 토기류가 출토되었습니다.

고산리 유적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한반도 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오래된 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고산리식토기'로 식물성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주도에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석기(細石器)들이 함께 발견되어 후기 구석기의 종돌날문화가 지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창기 신석기의 산물인 양면박리 석촉과 원시형 고토기(古土器)가 출현하는 복합적인 문화양상을 띠고 있어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고산리 출토 토기

고산리 유적에서는 고산리식토기(高山里式土器)와 무문양토기(無文樣土器), 용기문토기(隆起文土器), 점열문토기(點列文土器), 압날문토기(押捺文土器) 등이 나타납니다.

'고산리식토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토기로 섬유질이 혼입된 토기입니다. 문양이 없고 깊은 바리 모양이며, 토기의 태토(胎土)에 벼과(科) 식물 등을 넣어 만들어 그릇 표면에 풀잎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토기는 고산리 유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고산리식토기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용기문토기는 겉면에 흙으로 만든 띠를 붙여 장식한 토기입니다. 강원도 해안, 남해안과 제주 등지에서 주로 확인되며, 빗살무늬토기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납니다. 덧무늬의 덧띠는 매우 다양하며 기하학적인 무늬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 비록 소량이긴 하나 무문양토기, 용기문토기, 압형문토기, 자돌문토기, 압날문토기도 확인됩니다.

고산리 출토 석기

고산리 유적에서는 석촉과 찌르개, 새기개, 세석핵(細石核) 등의 성형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석촉은 전체 성형석기 중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찌르개는 전체 성형 석기 중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비교적 낮으며, 전형적인 수렵용 혹은 어로와 수렵에 병행되어 사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새기개는 퇴화형식이거나 새기개의 정형성을 상실한 부정형 새기개로 보이며, 세석핵(細石核)은 모두 후기 구석기시대 종말기에 해당하는 쇠퇴기(衰退期) 세석핵입니다.

출토 석기를 통해 볼 때 제주지역의 초창기 신석기문화는 발달된 수렵 중심의 생업체제를 유지한 집단의 문화이며, 동북아 전체의 전환기 특징인 후기 구석기시대 최말기 세석인문화의 계속 이어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찌르개



화살촉